

## 정도부사 ‘너무’의 의미와 의미운율: 음성 말뭉치 분석을 바탕으로\*

고연숙  
(서울대학교)

**Ko, Eon-Suk. 2015. Semantic prosody of the degree adverb *nemu*: An analysis based on a speech corpus.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21.2. 223-243.** The Korean degree adverb *nemu* has traditionally been thought to have a negative meaning, and prescriptive grammar has dictated that it should be used in a negative context. Speakers, however, have violated this rule so often that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recently acknowledged the use of *nemu* in a positive contex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usage of *nemu* in the conversational speech corpus Call Friend Korean. Specifically, it analyzes the distribution of the semantic contexts in which it is used. The classification of the sentiments for which *nemu* is used reveals that while *nemu* is used in a negative context most often, its usage in positive and neutral contexts is also quite frequent. A collocation analysis of the same corpus shows that *nemu* is more often used with negative words than positive or neutral on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paper proposes that *nemu* lacks a negative meaning in itself, but is imbued with a negative aura of meaning by its contexts or collocates. It also argues that the frequent violation of prescriptive grammar with regard to the usage of *nemu* reflects its status in the lexicon of lacking a grammaticalized negative meaning.

Keywords: semantic prosody, speech corpus, degree adverb, sentiment

### 1. 머릿말

한국인처럼 어법에 맞는 혹은 ‘올바른’ 말을 쓰는 데에 관심과 열의를 보이는 민족은 드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말의 바른 용법에 관한 국립 기관의 계도를 받아들여 익히려 노력하는 것은 물론, 그 관심의 정도가 심지어는 텔레비전같은 대중매체에서 우리말의 바른 용법에 관한 퀴즈 오락물을 만들어 즐기는 수준에까지 이를 정도이니 한국인들의 규범 문법에 관한 흥미와 열의는 실로 대단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언중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문법에 민감한 이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면서도 규범 문법에 어긋난다고 여겨 마음에 부담을 느껴오던 어법 중의 하나가 정도부사 ‘너무’에 관한 것이다. ‘너무’는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국립국어원을 비롯한 보수적인 학자들의 일반적인 입장이었기에, 자신도 모르게 ‘너무’를 긍정적인 맥락에서 쓰고 나서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 이 논문의 구성과 내용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말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과, 참고문헌과 도움말을 주신 이정민 선생님, 홍기선 선생님,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도와준 조진영씨에게 감사드린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은 모두 저자의 책임이다.

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맥락에서 ‘너무’를 ‘정말’이나 ‘아주’ 등의 다른 정도부사로 바꿔쓰기는 하지만 ‘너무’를 썼을 때와 같은 맛이 나지 않는다면 불만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또 연예나 오락을 주로 다루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인 출연자가 ‘너무’를 긍정적인 문맥에서 사용하면 출연자의 말을 전사해 내보내는 자막에서 ‘너무’를 ‘정말’이나 ‘아주’와 같은 정도부사로 자의적으로 고쳐서 내보내기까지 한다.

국립국어원은 2015년 6월 15일, 표준국어대사전의 ‘너무’ 항목에 대한 뜻풀이를 변경함으로써 ‘너무’의 용법에 긍정을 나타내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예를 포함시켰다. 기존에 ‘일정한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게’로 뜻풀이되어 긍정적인 서술어와 어울려 쓰는 것이 비문법적인 것으로 치부되던 ‘너무’의 뜻이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상태로’로 변경되어 긍정적인 서술어와도 어울려 쓸 수 있게 된 것이다(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2015년 6월 18일 이정미, 2007년 9월 27일 답변에 대한 고침).

한국의 많은 일간지와 대중매체들은 이러한 수정 내용이 국립국어원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6월 22일 이를 주요 뉴스로 다루었다. 이에 많은 인터넷 공간에는 이에 대한 안도와 반가움의 목소리들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너무’를 긍정적인 문맥에서 피하려고 하면 서도 자신도 모르게 자주 쓰게 되어 찝찝했는데 이제는 죄책감 없이 써도 되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언중의 바른 언어 생활을 이끌어야 할 문법 학자들이 대중의 실제 언어 생활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규범 문법을 수정해 나가면 중국적으로 언어가 그릇된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염려 섞인 비판도 제기 된 것이다.

저자는 언어 연구의 주요 기능이 사람들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을 정하고 교육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는 시각과는 궤를 달리 하여, 언어학의 목적은 인간이 쓰는 언어를 탐구의 대상으로 보아 그 내재한 질서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의 인지 기제를 이해하는 데에 일조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언어학의 주요 관심사는 인간이 발화할 수 있는(I-language) 혹은 실제로 발화하는(E-language) 언어를 지배하는 문법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규범 문법, 즉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때 쓰는 문법과는 종종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입장에서 ‘너무’의 본래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음성 말뭉치에서 ‘너무’가 쓰이는 실제 발화를 분석한 결과, ‘너무’가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이는 것이 옳다는 기존의 규범 문법의 입장에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너무’가 부정인 아닌 긍정의 맥락에서 상당히 자주 쓰이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지만, 부정도 긍정도 아닌 중립의 맥락에서 쓰이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빈도수로 존재한다는 것도 그 이유이다. ‘너

무’가 중립의 맥락에서 쓰인다는 것은 단어의 어근인 ‘넘다’ 자체에는 ‘일정한 한계를 넘어’라는 의미 이상의 긍정/부정과 같은 가치값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나아가 ‘너무’에 관한 기존의 규범 문법이 상정되게 된 원인을 의미운율(Louw 1993, 강범모 2011) 이론에 바탕하여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본래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 연구의 결론은 개정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너무’ 항목에 관한 기술의 개정에 힘을 싣고 언중의 언어생활에 규범 문법이 끌려간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론적 뒷받침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겠다.

## 2. 이론 배경

### 2.1 선행 연구

한국어 정도부사 ‘너무’에 관하여는 적지 않은 선행 연구가 있다. 기존의 논문들은 대개 직관적이거나 문어적인 데이터에 바탕해 논의를 전개 했으며, 그 주제는 ‘너무’의 의미나 형태에 관련한 어형성(임규홍 2004, Kim 2008), 너무와 서술어 간의 공기 관계(임규홍 2004, 박동근 2007, 고혜원 2011), ‘너무’가 수식하는 어휘 등에 관한 것이 많았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구어체 말뭉치 데이터에 바탕한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안주호(2003)는 ‘되게’, ‘너무’를 비롯한 정도부사들이 문어체에 비해 구어체에서 더 활발하게 쓰임을 밝혔다. 또 김혜영·강범모(2010)는 세종 구어 말뭉치에 바탕하여 정도부사의 남녀 성에 따른 분포 등의 주제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가장 최근에 Nam (2014)는 인터넷의 영화 평론을 모은 코퍼스를 세종 코퍼스의 문어체 데이터와 비교하여 ‘너무’를 비롯한 정도부사들이 영화 평론 코퍼스에서 더 많이 나타남을 밝혔다. 그러나 정도부사 가운데에서도 ‘매우’(Nam 2014), ‘가장’(김혜영·강범모 2010)과 같은 단어들은 구어 표현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너무’의 긍정 혹은 부정의 의미에 관한 논의를 간단히 살펴 보자. 국어학자들의 전통적인 시각은 ‘너무’의 부정적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너무’의 어원을 ‘어떤 정도를 지나치다’라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아, ‘너무’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이는 것은 어쩌다 한번씩 있는 말실수 혹은 비문으로 치부되거나 어의 전성의 산물로 보았다(최현배 1971, 서정수 1996, 고혜원 2011). 또 전산 언어학의 의견 분류(opinion classification)나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 쪽 연구에서도 ‘너무’가 들어가 있으면 부정의 의미로 분류할 것으로 제안되었다(Myung et al. 2008, Lee et al. 2010).

비교적 최근에는 ‘너무’가 긍정적 맥락에서 쓰이는 것에 대해 문법적 분석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이석규 1988, 임규홍 2002, 2004, 고혜원 2011). 특히 Nam (2014)은 ‘너무’의 기능에 두 가지 독립된

기능이 있다고 제안하며, Intensifying Adverb로서의 ‘너무’는 부정이나 긍정의 맥락 어느쪽이든 쓰여서 그 맥락의 극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가지는 반면, Opinion Introducer로서의 ‘너무’는 문장에 부정적 의견을 도입하는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너무’가 긍정의 맥락에서 쓰이는 것을 비교적 최근에 젊은이들의 발화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현상으로 보는 역사 사회 언어학적 시각도 있다. Kim (2008)은 세종 말뭉치의 역사 텍스트와 현대 구어 말뭉치에 바탕한 연구이다. 이에 따르면 ‘너무’가 긍정적인 맥락에서 쓰이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나 그러한 용법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어서, 일찌기 1481년 조선 성종 때 간행된 두시언해에서도 ‘너무’의 긍정적인 용법이 나타난다고 한다.

## 2.2 의미운율

본고는 사람들이 ‘너무’가 부정의 의미를 지닌다고 흔히 생각하게 된 것에 대해 의미운율(semantic prosody) 이론의 시각을 반영한 설명을 제시한다. 의미운율이라는 개념은 본래 음운론의 운율적 동화 현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음운론에서 초분절(suprasegmental) 혹은 운율(prosody) 현상이라고 하면 보통 음절, 구, 문장 단위에 나타나는 억양, 강세, 음장 등의 현상을 일컫지만, 모음 조화나 비음화 같은 현상도 운율현상으로 보기도 한다(Firth 1948). 예를 들면 animal이라는 단어에서 비음인 *n* 이나 *m*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모음들이 비음의 자질을 띄게 되는 현상도 운율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코퍼스 언어학에서 어떤 키워드가 특정 의미 자질을 가진 단어들과 반복해서 나타나며 그 단어들의 의미 자질이 키워드에 전이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가령 impressive라는 단어 자체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뜻이 없지만 이 단어가 주로 함께 쓰이는 단어들이 achievement, talent와 같은 단어들이다보니 이 단어들의 긍정적인 기운이 impressive라는 단어에 전이되어 사람들이 impressive라는 단어를 긍정의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일컬어 의미운율이라고 한다(Partington 1998).

의미운율의 개념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Louw (1993), Sinclair (1991, 2004), Stubbs (1996, 2001), Partington (1998, 2004)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의미운율이라는 개념에 대해 조금씩 다른 정의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Partington 같은 이는 의미운율의 개념을 한 단어의 경계를 넘어서 전달되는 암시의미로 보았다("the spreading of connotational coloring beyond single word boundaries", Partington 1998: 68). 한편 Sinclair 등의 학자는 의미운율을 연어(collocates) 사이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정의했는데, 화자가 어떤 단어를 선택할 때에는 우연히 그 단어를 선택하지 않고 연어 관계에서 파생되는 의미가 화자의 의도나 태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어떤 선택 제

약(selectional restriction)을 적용한다고 보았다

의미운율의 이론 중 본고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장은 특정 단어와 자주 함께 나타나는 어떤 단어나 구의 의미가 그 특정 단어에 전이된다는 Partington 류의 주장이다 (Louw 1993, Hunston 2002, Whitsitt 2005). 즉 어떤 특정 단어가 부정이나 긍정적인 태도 혹은 감성을 나타내는 맥락에서 반복해서 사용될 경우, 그 특정 단어가 다른 맥락에서 쓰일 때에도 그 연어의 의미와 관련된 긍정 혹은 부정의 색채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단어들은 텍스트의 맥락에서 도출된 의미가 그 단어에 부가되어 암묵적으로 긍정 혹은 부정의 색채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impressive 외에 의미운율의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보자. 영어의 경우 잘 알려진 예 중에 cause와 같은 단어가 있다. Stubbs (1995)에 의하면 cause는 ‘위해’, ‘경고’, ‘싸움’, ‘위험’ 등의 부정적 의미를 가진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긍정적 의미를 단어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80% 부정, 18% 중립, 2% 긍정). 그 결과로 cause 자체에는 부정의 의미가 없지만 부정적 감정이 cause와 연관지어지게 되었다. 또 Sinclair (1987)은 happen이 주로 부정적인 단어와 함께 쓰인다는 것을, 그리고 Louw (1993)는 utterly가 주로 unpredictable, alien, useless처럼 부정적 의미를 가지는 단어와 함께 쓰인다는 것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happen이나 utterly 자체에는 부정의 의미가 없지만 영어의 화자들은 이 단어를 들을 때에 부정적인 의미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본 연구가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여 말하면 그것은 ‘너무’가 부정적인 맥락, 그리고 부정의 의미를 가진 단어와 연어 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어휘의 분포적 특성이 ‘너무’ 자체의 의미에 전이되어 그 단어의 의미 혹은 기운(aura)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 2.3 연구 목적

본고의 목적은 ‘너무’의 의미가 부정적 의미 맥락에서 쓰이는 것이 올바른 용법이라는 기존 규범문법의 입장을 구어체 대화 말뭉치를 바탕으로 재조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너무’가 긍정 혹은 부정의 의미 맥락에서 쓰이는 분포를 조사하고, 또 ‘너무’와 함께 쓰이는 단어들의 빈도수를 분석한다. 방법론적으로는 실제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 발생하는 발화 중에서 ‘너무’를 포함하는 구절 722개를 텍스트와 음성을 함께 참고하여 그 의미 맥락을 판단한다. ‘너무’가 나타나는 의미의 맥락을 분석한 결과 그 맥락이 부정이나 긍정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지만 분류가 매우 힘든 경우도 적지 않음을 보인다. 또한 ‘너무’의 연어 관계에 관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 분석 결과에 바탕하여 본고는 정도부사 ‘너무’가 그 자체로는 긍정이나 부정의 의미를 가지지 않고 단지 ‘일정한 정도를 넘는다’

는 고유의 의미를 가질 뿐임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Nam (2014)의 *Intensifying Adverb*로서의 ‘너무’에 대한 설명과는 달리 ‘너무’가 반드시 어떤 긍정 혹은 부정의 극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한다. ‘일정한 정도를 넘는다’는 본래의 의미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의미 가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부정은 물론 긍정과, 중립적인 의미의 서술어도 수식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비교해 방법론 면에서 다른 점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데이터면에서 기존의 논문과 달리 구어체 데이터와 그에 동반하는 음성파일에 바탕 했다는 것이다. 단어의 의미운율에 관해 구어체 말뭉치에 바탕한 기존 연구가 존재하기는 하나(김혜영·강범모 2010) 음성에 관한 정보 자체를 활용하여 ‘너무’의 의미운율에 관해 수행한 연구는 필자가 알기로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둘째, ‘너무’가 쓰인 의미 맥락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연구자의 주관이 배제되기는 힘들지만 선행 연구에 비해 객관을 유지하려는 방법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본고의 이 두 가지 특징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서술해 보자.

텍스트 말뭉치에 바탕한 연구인 Nam (2014)은 직관이 아닌 실제 데이터에 바탕한 이론의 논의가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그런데 음성 말뭉치 데이터의 경우 Nam (2014)에서 이용된 텍스트 데이터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텍스트 데이터가 활자라는 2차원적 데이터라면 음성 데이터는 소리라는 정보를 포함하여 시각외에 청각이라는 감각을 활용하는 3차원적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다. 또 음성 말뭉치는 구어체 특유의 미완성 문장 등 정련되지 않은 발화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지만 실제 화자가 발화하는 데이터이므로 중요한 데이터이다.

음성 말뭉치를 활용하여 의미운율을 연구할 때의 가장 큰 장점은 텍스트만으로는 ‘너무’를 포함한 의미의 맥락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호할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때 억양을 참고해서 화자의 의도 혹은 감성(sentiment)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말뭉치 안에 나타나는 발화에 바탕한 연구이기 때문에 의미 맥락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불분명한 경우 전후의 문맥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유리한 점이다.

본고는 또한 ‘너무’가 쓰인 맥락의 의미 혹은 감성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단하는데에 방법론적인 엄밀성을 시도하였다. 많은 기존의 연구들은 ‘너무’의 긍정적 의미 기능에 대하여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논문이라 할지라도 ‘너무’가 쓰인 맥락의 의미를 판별하는 엄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맥락을 판별하는데에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는 논문도 있지만(김혜영·강범모 2010), 그러한 부연 설명 없이 ‘너무’의 의미 맥락에 대한 분포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 마치 의미 맥락의 긍정과 부정에 대한 값을 판단하는 것이 별 어려움이 없는 문제인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구어체 발화 데이터를 마주하면 ‘너무’가 긍정을 뜻하는지 부정을 뜻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된다. 본고는 의미 맥락의 판단 기준을 자세히 제시하려는 시도를 하고, 또 한명 이상의 판단자를 두어 일치도를 카파통계(kappa statistics)를 이용하여 계산함으로써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 3. 연구 방법

#### 3.1 Call Friend Korean 음성 말뭉치

Call Friend Korean 말뭉치(Ko et al. 2003)는 이름 그대로 친구 관계인 두 사람 사이의 전화 통화를 한 시간 가량 녹음한 100 개의 음성 파일과, 각 파일 중 통화 품질이 좋은 15 분 정도의 분량을 전사한 100 개의 텍스트 파일로 이루어진 말뭉치이다. 이 가운데에 83 개의 통화는 같은 성을 가진 화자 가운데 일어 났다(55개의 여성-여성, 28 개의 남성-남성 통화). 나머지 17 개의 통화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일어나는 통화이다. 미국에서 제작한 관계로 참여자들은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다.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21.8 세(표준편차 = 8.7) 이다.

코퍼스 전체에 100 통화가 담겨 있으므로 참여자는 200명이여야 하나, 실제로는 전화 통화 중 가쪽을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 부분적으로 참여한 화자를 포함하면 203명의 목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100 통화의 전사 내용은 중복 단어를 포함하여 띄어 쓰기 기준 총 235,081개의 어휘를 포함하고 있다. 중복 단어를 한 번만 셀 경우 29,537개의 어휘가 담겨 있다.

기존 연구에서 ‘너무’는 문어체보다 구어체에서 훨씬 더 자주 쓰인다는 것이 보고 되었다(김혜영·강범모 2010, Nam 2014). 구어체 중에서도 공식적인 맥락과 사적인 맥락에서 정도부사의 사용 양태가 다르다는 보고가 있는데(김혜영·강범모 2010), 본고에서 사용한 Call Friend Korean 말뭉치는 구어 말뭉치이면서 서로 잘 아는 사람 사이의 전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너무’의 출현 빈도가 가장 빈번하리라 기대되는 사용역(register)의 말뭉치이다.

Call Friend Korean 말뭉치에서 ‘너무’를 사용하는 화자는 모두 156 명이였다. 전부 722개의 ‘너무’가 쓰인 것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각 화자가 15분 정도의 대화 중 평균 4.6번 정도 해당 단어를 발화한 것이다(표준 편차 = 4.6). 개별 화자의 발화 범위로는 15분 동안 해당 단어를 1회에서 29회까지 발화하였다.

#### 3.2 긍정과 부정의 판단 기준

정도부사가 쓰인 맥락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단하려는 시도는

기준에 있었으나 그 판단 기준이 자세히 기록된 연구는 드물다. 김혜영·강범모(2010)는 술어를 기준으로 긍정/부정을 판단했다고 기술하면서 연구자의 주관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고혜원(2011)은 긍정 부사로서의 ‘너무’는 ‘기쁘다’, ‘좋다’, ‘예쁘다’, ‘고맙다’ 등의 주관적 감정 용언만을 수식하고 (예: 너무 예쁘다), 반면 ‘크다’, ‘빠르다’ 처럼 주관적 감정 용언이라기 보다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어느 정도 객관적 사실의 기준이 있어 그 정도를 나타내는 용언을 수식할 때는 부정의 정도부사로 쓰인다고 한다(예: 키가 너무 크다). 그러나 특정 용언이 주관적 감정을 나타내는지 객관적 사실을 나타내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도 반드시 명확하다고는 하기 힘들다. Nam (2014)는 ‘너무’를 중심으로 긍정/부정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판단 기준에 관한 특별한 논의 없이 ‘너무’의 긍정/부정적 맥락의 사용에 관한 통계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긍정/부정을 판단하는 데에 쓰인 방법은 두 가지 면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먼저, 이 논문에서 ‘너무’가 쓰인 맥락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안’이나 ‘못’과 같은 부정어 존재 여부에 따른 문법적 기준이 아닌 의미적 혹은 감성적 (sentiment) 기준인 것을 말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논문이 기존의 연구와 비교해 뚜렷이 구별되는 것 중의 하나는 긍정/부정을 판단하는 데에 음성 정보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구어체 말뭉치에 기반한 분석이라 하더라도 텍스트만으로 긍정/부정을 판단한 기존의 연구에 비해 이 논문은 실제의 음성 데이터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여 긍정/부정에 대한 값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에 도움을 받아 분석하였다.

‘너무’의 긍정/부정 의미를 판단할 때 음성 정보를 참고하여 문법 보다는 의미적 기준을 우선으로 한 이유는 텍스트만으로는 긍정/부정의 감정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령 ‘너무 충격적이다’ 혹은 ‘너무 놀랐다’ 와 같은 문장들은 이 자체만으로는 긍정의 맥락에서 쓰였는지 부정의 맥락에서 쓰였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긍정적인 뜻을 지닌 용언이 부정어와 결합하지만 그것이 관용적 표현으로 긍정적인 뜻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긍정/부정을 판단하기 보다는 의미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1)의 예문들은 모두 ‘너무’가 ‘좋다, 바쁘다, 똑똑하다, 다르다’와 같은 용언을 수식하는 경우이다 (예문 뒤에 해당 발화의 출처를 말뭉치 안의 파일 이름으로 밝혔다).

- (1) a. 너무 좋아 잠도 안온다  
       b. 딴 애들이 너무 똑똑해서 (ko\_5969)  
       c. 토론토하고 너무 다를 거야 (ko\_6129)

(1a)의 ‘너무 좋아 잠도 안온다’와 같은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부



정 접두사 ‘안’을 포함한 ‘안온다’로 인해 부정문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문장 전체의 의미가 확실한 긍정의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긍정으로 본다. 비슷한 경우로 ‘보고 싶어 못살겠다’, ‘우스워 죽겠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처럼 긍정의 술어가 부정어와 결합하는 경우는 관용어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이정민, personal communication).

분명한 긍정의 의미를 지닌 용언 ‘좋다’를 내포한 (1a)에 비해 (1b)의 경우는 판단이 약간 더 어려운데, (1b)의 경우 원래 ‘똑똑하다’는 긍정의 뜻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혜원(2011)의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똑똑하다’는 ‘예쁘다’와 비슷하게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용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긍정의 정도부사로 쓰였을 것이라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단어가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맥락에서 쓰이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이 발화는 ‘너같이 똑똑한 애가 왜 힘들냐?’라는 상대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딴 애들이 너무 똑똑해서’라는 답이 나온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똑똑하여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위축되는 상황이므로 전체적인 감성(sentiment)은 부정으로 판단했다. 이 경우는 ‘너무’가 쓰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용언 혹은 술어의 의미가 중요하기도 하지만(Nam 2014), 반대로 이렇게 주어

가 중요하기도 함을 시사한다. (1c)의 경우 ‘다르다’ 자체는 긍정이나 부정의 의미는 지니지 않지만 문맥에 따라서 긍정이나 부정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경우가 있다. 고혜원(2011)의 기준에 따르면 ‘다르다’는 것은 주관적인 감정의 용언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객관적 기준을 따르는 용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가 부정적 맥락에서 쓰였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문장이 쓰인 맥락을 살펴보면 ‘몬트레올이 진짜 예뻐, 도시가. 토론토하고 너무 다들 거야’라고 하면서 몬트레올의 아름다움을 토론토와 비교하여 강조하는 경우이므로 긍정으로 코딩을 하게 되었다.

‘너무’는 용언을 수식할 뿐 아니라 동사를 포함하는 서술구(complex predicate)를 수식하기도 한다. 다음에 ‘너무’가 서술구를 수식하는 경우의 예를 보자.

- (2) a. 아 거기서 너무 신경쓰지 말고 {laugh}. (ko\_6334)
- b. 너무 많이 잡는데 쓸 데는 없으니까 (ko\_6406)
- c. 너무 그냥 갑작스럽게 다 돼 가지고 (ko\_6316)

(2a)에서 술어는 ‘신경쓰다’인데 이 단어는 일견 긍정보다는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는 듯하지만 그를 부정하는 ‘말고’가 따라와 전체 문장은 긍정이 된다. 또한 음성파일의 억양도 웃음을 동반하여 긍정의 감성(sentiment)을 반영하므로 긍정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만약 이 문장이 웃음을 동반한 것이 아니라 짜증 섞인 말투로 발화

된 것이라면 부정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긍정/부정의 판단에 음성파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2b)의 경우, 미국의 메인(Maine) 주에서 랍스터를 너무 많이 잡아 쓸 데가 없으니 거름으로 쓰기도 하고 죄수들에게 음식으로 주기도 했었다는 이야기의 맥락에서 나온 발화이다. 얼른 생각할 때 물고기를 많이 잡거나 수확하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이 특정 맥락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잡은 것이 처치가 곤란한 부정적 상황으로 받아 들여지므로 부정으로 코딩하였다. 이 경우는 특별히 억양은 부정적이었다고 보기 힘들지만 문맥에 바탕해 판단한 경우이다.

(2c)의 경우 ‘갑작스럽다’는 자칫 부정의 의미일 듯 싶으나 문맥을 확인한 결과, 선을 봐서 갑자기 결혼을 결정해 상대방은 ‘그래 요즘에 완전히 막 하늘을 날아 가겠네, 기분에’ 라고 축하해 주고 당사자는 ‘그냥, 기분이 그냥, 그냥. 아직도 그 실감 안 나는 것 있잖아.’ 라고 대응하는데, 말은 ‘그냥’이라고 하지만 밝은 목소리의 억양과 사회 통념을 적용해 긍정으로 코딩했다.

위의 예 (1)과 (2)에서 보듯 ‘너무’가 쓰인 문장의 의미나 감성을 판단하고자 할 때 단순히 해당 문장의 텍스트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음성 파일을 활용하여 억양 등 감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음성 자질을 이용하고, 또 발화가 위치한 전체적인 맥락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한 가지 부연 설명할 점은, 음성 파일의 억양은 긍정이나 부정을 판단하는 데에 보조적인 자료로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텍스트를 바탕으로 긍정이나 부정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특히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가령 ‘너무 예뻤는데 정말 아깝게 놓쳤네’ 와 같은 문장은 그 발화의 전체적인 감성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해당 절 안의 술어인 ‘예쁘다’는 것은 긍정의 의미가 분명하므로 긍정으로 코딩한다. 또한 ‘사모님이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아니실까요? {laugh}’ 라는 발화는 비록 웃음을 동반하기는 하지만 문맥은 부정의 의미이므로 부정으로 코딩한다.

### 3.4 실험 절차

Call Friend Korean 구어 말뭉치의 100개의 전사 파일에서 ‘너무’를 포함하는 발화를 Unix의 grep 명령어를 이용하여 모두 702개의 발화를 추출하였다. 데이터의 일부분을 (3)에 제시한다.

(3) grep 명령어를 이용하여 추출한 데이터의 일부분

ko\_5637.txt:588.99 591.52 B: 너무- 세상이 그렇게 돌고 돌고 돌다가,  
ko\_5637.txt:641.94 648.13 A: %어, 나한테 내- 야 야 내가 열 받았었  
잖아. 나한테는 애를 금방 낳으면 첫째 애한테 너무너무  
<English unfair> =라고.

ko\_5637.txt:708.08 710.55 B: 그래. (( )) 맨날 하루가 너무 잘 가지 않니.  
 ko\_5637.txt:814.61 817.63 A: 너무 웃긴다.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해도 돼. {laugh}  
 ko\_5637.txt:902.27 904.18 B: 나- 나는 시어머니 없으면 너무 심심해. {laugh}

위의 데이터 각 라인은 파일 이름(예: ko\_5637.txt), 해당 발화의 녹음 파일 내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초 단위의 타임 스탬프(예: 588.99 591.52), 화자가 전화의 수신인인지 발신인인지의 정보(예: B), 그리고 발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100 개의 녹음 파일에서 각 발화에 해당하는 부분을 타임 스탬프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이 작업은 R 프로그램(R Core Team 2013) 안에서 PraatR 패키지(Albin 2014)를 설치한 후 Praat 프로그램(Boersma and Weenink 2013)과 R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그 후 Praat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추출된 음성파일을 한 개씩 차례로 열어 ‘너무’가 쓰인 문맥의 의미를 감성을 중심으로 코딩하는 작업을 하였다. 앞서 기술한대로 음성 파일을 바탕으로 코딩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 비해 역량을 이용한다는 잇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화 자체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긍정이나 부정으로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말뭉치가 잘 아는 사람 간의 전화 대화이기 때문에 발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발음도 명확하지 않을 경우이다. 이런 경우 전사 자료를 보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발화를 단독으로 들으면 무슨 말인지 불분명할지라도 문맥 안에서 들으면 전후 맥락으로 무슨 말인지 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전사를 할 때는 문맥을 들으면서 전사를 했기 때문에 해당 문장의 전사만 봐도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이 경우에는 추출한 발화의 텍스트 목록만 보아도 해결이 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는 추출한 발화의 텍스트만으로는 부족하여 앞뒤의 맥락을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전사 파일 전체를 열어 문제가 되는 발화가 위치한 지점을 찾아 앞뒤 맥락을 살핀 다음 의미적 맥락을 판단했다. 예를 들어 ‘바쁘다’, ‘다르다’ 등 서술어 자체만으로는 긍정/부정의 판단이 힘든 경우에 ‘너무’가 쓰인 문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참고해 그 의미 혹은 감성을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앞절의 긍정/부정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서술에 자세한 예를 들었다. 대체적으로 ‘똑같다’, ‘놀랐다’, ‘웃기다’, ‘열심히 하다’, ‘광범위하다’ 등의 술어를 포함한 문장의 대부분은 전사 파일을 열어 문맥을 확인한 다음 문맥의 의미를 판단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런데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한 후에도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이 힘든 경우들이 있었다. 상당한 고심 후에도 판단이 힘든 이

와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보류하는 것으로 코딩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결과와 함께 제시한다. 모든 발화가 긍정 혹은 부정의 성질을 반드시 가진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반드시 이런 극성의 자질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철학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기에 이 연구에서는 미루어 두기로 한다. 다만 선행연구(김혜영·강범모 2010)에서도 ‘너무’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도부사가 나타나는 용례의 거의 절반 정도는 중립적인 의미운율을 가진다고 분석한 것을 볼 때 긍정/부정의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너무’의 경우에도 상당 수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긍정/부정 판단에 관련한 어려움이 저자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어쨌거나 본고에서는 가능하면 ‘너무’가 쓰인 발화를 긍정 혹은 부정의 이분법적 분류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여 중립의 판정을 줄이려 노력했다. 다시 말해 본고는 ‘너무’가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정도부사라는 기존의 입장과 그 외에 긍정의 의미도 있다는 몇몇 다른 논문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Praa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긍정/부정을 코딩한 후, 그 결과물을 Praat 스크립트로 추출해 내고 R 스크립트를 이용해 통계를 내었다. 또 긍정/부정의 분석과는 별도로 R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언어 관계 등의 텍스트 분석을 수행하였다.

### 3.5 판단의 신뢰성(reliability)

판단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자 이외에 다른 평가자의 판단을 구하였다. 어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연구보조자에게 전체 데이터의 약 10%인 69개의 샘플에 대해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는 실습을 거치게 하였다. 먼저 특별한 기준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연구보조자가 이 샘플에 대해 ‘너무’가 쓰인 맥락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평가했다. 그 결과를 저자의 판단과 비교하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1에서 두 평가자는 저자와 연구보조자를 일컫는다.

표 1. ‘너무’의 의미에 관한 두 연구자의 판단의 교차분할표

		평가자 1			계
		긍정	부정	중립	
평가자 2	긍정	14	1	1	16
	부정	1	43	3	47
	중립	1	4	1	6
	계	16	48	5	69

두 평가자 사이의 ‘너무’에 대한 의미 판단의 일치도를 판단하기 위해 두 평가자의 범주 데이터 분류에 관한 일치도를 가늠하게 해 주는 카파값을 구했다. 단순히 69개의 샘플에서 10개의 불일치를 제외한 59개의 일치가 있었으므로  $59/69 = 0.86$  이라는 값을 구하지 않고 카파값을 구하는 이유는 우연히 두 평가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의 수를 관측값에서 제하여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계산 결과 두 평가자 사이에  $k=0.65$  (95% 신뢰 하한 = 0.57, 95% 신뢰 상한 = 0.84) 의 일치도가 있었는데 Landis and Koch (1977)의 기준에 따르면 이것은 상당한 정도의 의견 일치에 있는 것이다.

비록 상당한 정도의 일치가 있다 하더라도 카파값의 범위가 -1에서 1이므로 그 일치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자가 보조 연구자에게 3.2에 서술한 긍정과 부정에 관한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69 개 안에 들어 가지 않는 예문을 들어 자세히 토론하고 연습하게 하였다. 그 후 69 개의 데이터에 대해 보조 연구자가 다시 코딩을 실시한 결과 1개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연구자와 의견이 일치하였다( $k=0.96$ , 95% 신뢰 하한 = 0.89, 95% 신뢰 상한 = 1).

뚜렷한 기준에 대한 학습 없이 코딩 했을 때 긍정/부정의 판단에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의견 불일치가 나왔으며 대부분의 불일치가 뚜렷한 기준에 바탕한 연습 후 사라졌다는 것은 ‘너무’가 쓰인 맥락의 긍정/부정을 판단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제시하며, 따라서 이같은 연구를 시행할 때에는 세심한 방법론이 확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충분한 연습이 된 후 저자와 연구보조자가 전체 데이터를 반씩 나누어 코딩한 다음 이론의 여지가 있는 소수의 데이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저자가 내리는 과정을 거쳤다.

#### 4. 결과

##### 4.1 의미 맥락의 분포

앞서 언급했듯이 전통적으로 ‘너무’는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이는 것이 올바른 용법으로 알려져 왔고 최근 들어 긍정의 맥락에서 쓰이는 용례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너무’가 부정과 긍정의 맥락에서 쓰이는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702개의 발화 안에 나타나는 722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구어체 대화에서 ‘너무’의 의미 맥락과 성별에 따른 분포

	긍정	부정	중립	계
남성	19	70	3	92
여성	180	422	28	630
계	199	492	31	722

예상한 바와 같이 ‘너무’는 긍정보다는 부정의 맥락에 두 배 이상 더 빈번히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너무’의 각각의 의미 맥락에서의 분포는 남녀의 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chi^2(2, N=722) = 3.1, p=0.2$ ). 그런데 이 결과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규범문법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가 긍정의 맥락에서 쓰이는 빈도가 상당히며, 중립의 맥락에서 쓰인 경우도 무시할만큼 적은 빈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래에 ‘너무’가 긍정과 부정의 맥락에서 쓰인 예를 제시한다.

(4) ‘너무’가 긍정의 맥락에서 쓰인 경우들

- a.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ko\_5969)
- b. 남편을 너무 잘 만났어요. 아주 괜찮고. (ko\_6528)
- c. 나보고 너무 머리 이쁘대 (ko\_5963)

긍정의 맥락에서 ‘너무’가 쓰인 경우 바로 다음에 오는 단어로 가장 빈번한 단어는 기본형을 기준으로 ‘좋다’가 34회였고, 그 외 ‘잘’이 27회, ‘예쁘다’가 15회로 나타났다. ‘잘’은 대부분 ‘잘 한다’, ‘잘 됐다’와 같이 뒤에 오는 술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부사로 쓰였다.

(5) ‘너무’가 부정의 맥락에서 쓰인 경우들

- a. 그래도 눈이 안 왔으니까 다행이네. 여긴 눈이 너무 많이 와 갖고요. (ko\_6618)
- b. 그런 애 있더라. 그 너무 싫지 않아요? (ko\_5428)
- c. 막 허리가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ko\_6667)
- d. 근데 거기가 너무 비싸고 (ko\_5969)

부정의 맥락에서 ‘너무’가 쓰인 경우 ‘너무’ 뒤에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단어는 ‘많다’로 53회, ‘싫다’ 21회, ‘힘들다’ 16회, ‘비싸다’ 15회의 순이었다.

또한 긍정/부정으로 판단하고자 문맥을 확인하고 억양을 참고하는 등의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힘들어 중립으로 분류된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다.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다.

(6) 긍정/부정의 판단을 유보한 경우들

- a. 너무 갖난애였을 때부터 안아 주고 그랬으니 (ko\_5428)
- b. A: 목소리도 많이 바뀐 거 같애.  
B: 내가 너무 깔았나? (ko\_6316)
- c. 너무 웃겨 갖고 (ko\_5008)
- d. 아우 내가 은숙 언니 결혼 했다는 게 너무 충격이야 (ko\_6494\_11).
- e. 자기 아는 사람하고 너무 똑같대 (ko\_5040)

위의 보기에서 밑줄친 부분이 ‘너무’에 의해 수식을 받는 단어/구이다. (6a)의 경우는 어떤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보았다는 뜻인데 문어적인 표현으로는 어색하다고 느껴지나 구어에서는 용납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뜻은 특별히 부정이나 긍정의 의미를 내포한다기보다 아이가 매우 어릴 때부터의 인연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6b)의 경우는 상대방이 목소리가 바뀌었다고 인지한 이유가 목소리를 낮추어서일 가능성이 있다는 상황인데, 목소리를 낮추어서 결과적으로 목소리가 다르게 들린다는 것은 특별히 부정이나 긍정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맥락이다. (6c)의 경우는 우연의 일치로 어떤 사람을 특정 장소에서 만났다는 맥락으로 특별히 긍정이나 부정의 감정이 담겨있기 보다는 놀람의 표현이다. (6d)의 경우는 (6c)와 비슷한 경우로 지인이 네살 연하와 결혼했다는 게 충격이라는 얘기인데, 특별히 화자가 그로 인해 부정이나 긍정의 의견을 표출하지 않아 어느 한쪽으로 판단하기 힘든 경우이다. (6e)의 경우 어떤 사람이 서로 비슷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딱히 부정이나 긍정으로 판단하기 힘든 문제이다.

위에서 살펴본 ‘너무’의 의미적 분포를 종합하면, ‘너무’가 부정적인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긍정의 맥락과 중립의 맥락에서 쓰이는 용례도 무시할만한 빈도는 아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5절에서 토론한다.

#### 4.2 연어 분포의 양상

위에서 ‘너무’가 긍정 혹은 부정의 의미맥락에 나타날 때 가장 빈번히 함께 나타나는 단어를 제시하였는데, 이 절에서는 ‘너무’와 관련한 연어의 분석을 좀 더 자세히 제시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분석한 722개의 발화 중 ‘너무’의 뒤에 나와 연어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기본형 기준으로 총 267 단어였다. 총 267개의 단어를 x축에 놓고 각 단어들이 말뭉치 안에서 나타나는 빈도수를 y축에 놓았을 때 다음과 같은 분포도가 얻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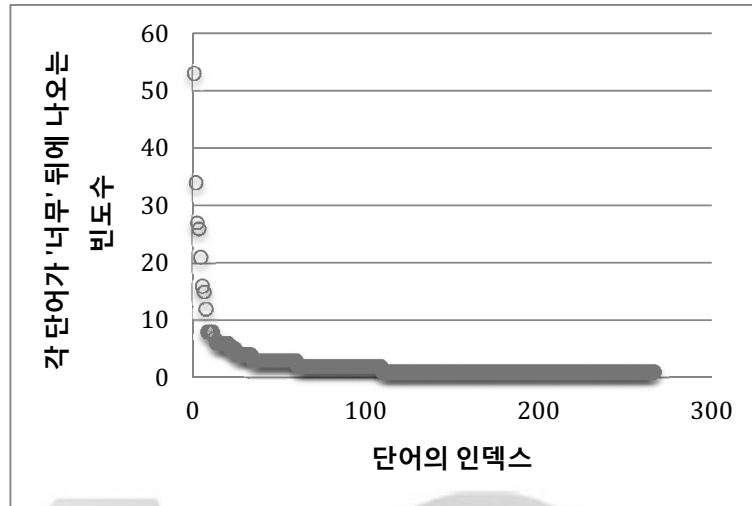


그림 1. '너무'의 뒤에 나오는 단어의 출현 빈도 수

그림 1에 나타난 데이터의 분포는 작은 샘플 사이즈 때문에 최다 빈도수를 가진 단어와 그 다음 빈도수를 가진 단어 사이에 배수의 규칙이 있다는 지프의 법칙(Zipf's law)을 엄격하게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특정 몇몇 단어들이 주로 '너무'와 함께 쓰이는 반면 156개에 이르는 단어들이 딱 한 번씩만 '너무'와 함께 쓰이는 등의 경향은 전형적인 지프 분포의 수학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로그 곡선에 근접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267개의 단어 가운데에 8번 이상 '너무'와 연어 관계를 보이는 단어는 다음과 같다.

(7) '너무'와 연어 관계에 있는 주요 단어

단어	빈도수
많다	53
좋다	34
잘	27
웃기다	26
싫다	21
힘들다	16
비싸다	15
예쁘다	12



막	8
안	8
멀다	8
재미있다	8

위의 단어들 가운데 ‘싫다’, ‘힘들다’, ‘비싸다’, ‘막’, ‘안’, ‘멀다’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이라고 볼 수 있고 ‘좋다, 잘, 예쁘다’, ‘재미있다’는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많다’와 ‘웃기다’는 그 자체로는 부정의 의미라고 보기 힘들다. 다만 ‘많다’는 ‘너무’와 함께 쓰일 때는 거의 항상 부정의 의미로 쓰인다(고혜원 2011). 위의 테이블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순서의 단어들은 ‘놀라다’, ‘미안하다’, ‘바쁘다’, ‘없다’, ‘착하다’, ‘크다’, ‘슬프다’ 등이 있다.

이상의 연어 분석에서 우리는 ‘너무’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와 더 자주 연어 관계로 출현하지만,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나 중립적인 의미의 단어와 함께 나타나는 빈도수도 무시할 수 없음을 본다.

## 5. 토론

4.2의 표2에서 보았듯이 ‘너무’는 부정의 맥락에서 가장 자주 쓰이지만 긍정의 맥락에서도 쓰이며, 또 중립적인 맥락에서도 쓰인다. 본고는 압도적으로 빈도수가 큰 부정의 맥락은 ‘너무’에 부정적인 의미운율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무시하지 못할 긍정과 중립의 빈도수는 한국어 화자의 마음속에 내재한 문법에 ‘너무’가 부정의 의미로 자리잡지 못했음을 반증한다고 본다.

2.2 절에서 간략히 소개한 바와 같이, 어떤 단어가 긍정이나 부정과 같은 특정한 의미 자질을 가진 단어들과 주로 결합하는 현상은 오래 전부터 관찰되었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최근 말뭉치의 발전과 함께 더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하였다(Stubbs 1995). 이렇게 어떤 단어와 자주 결합하는 단어들의 의미, 태도, 혹은 기운(aura)이 그 단어에 전이되어 화용론적 의미를 더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운율(semantic prosody; Louw 1993: 157, Hunston and Francis 2000: 137) 이라고 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의미운율의 이론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한다. 즉 ‘너무’라는 단어 자체에는 본래 부정의 의미가 있지 않으며 ‘넘다’라는 어원에 비추어 볼 때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넘어선 상태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인데, 부정의 뜻을 가진 단어와 자주 함께 쓰이다 보니 부정의 뜻을 지닌 것처럼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말의 의미운율에 관한 연구로는 강범모(2011)이 있고, 특히

김혜영·강범모(2010)은 ‘너무’를 비롯한 여러 정도부사가 공기하는 서술어와 함께 쓰여 긍정이나 부정 중 어떤 의미운율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총 2,800개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 강조의 의미를 가지는 정도부사는 긍정적인 서술어보다 부정적인 서술어와 더 많이 쓰이고, 특히 ‘너무’는 ‘거슬리다, 귀찮다, 늦다, 슬프다, 베끼다, 무섭다’ 등의 어휘와 빈번히 출현한다고 보고한다. 비록 사용한 말뭉치와 연구 방법은 차이가 있지만 본고의 연구 결과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Call Friend Korean 말뭉치 안에서의 ‘너무’의 연어 관계 분석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10회 이상 사용된 단어 외에 높은 빈도수의 단어로는 ‘막, 안, 멀다, 재미있다, 그렇다, 못, 좋아하다, 놀라다, 미안하다, 바쁘다, 없다, 착하다, 크다’가 뒤를 잇는다. 이 가운데에 ‘재미있다, 좋아하다, 착하다’는 긍정, ‘막, 안, 멀다, 그렇다, 못, 미안하다, 바쁘다, 없다, 크다’는 부정의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강범모(2011)에서 보고된 정도부사의 의미운율에 관한 분석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와 더 자주 쓰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너무’가 부정적인 의미와 연관지어 떠오르게 되고 나아가서 부정적 의미가 단어 본래의 의미라고 분석되는 데에까지 이르렀을 수 있다는 것이 본고가 제안하는 ‘너무’의 부정적 의미의 견해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빈번히 부정의 맥락에서 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가 긍정이나 중립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빈도수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점은 ‘너무’가 본래 부정의 의미를 가지지 않았고 따라서 화자의 마음에 문법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 ‘아무도’와 같은 단어는 반드시 문법적인 부정어와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문법은 규범문법뿐 아니라 실제로 일반 화자들이 거의 예외없이 위반하지 않는 문법이다. 하지만 ‘너무’의 의미가 부정이어서 부정의 맥락에서만 쓰여야 한다는 규칙은 규범 문법을 넘어서 화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문법으로서의 심리적 실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위반되어 ‘너무’가 긍정 혹은 중립의 맥락에서 상당히 자주 쓰이는 것이다.

## 6. 결론

본고는 정도부사 ‘너무’가 본래부터 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부정의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용법이라는 전통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화자들이 ‘너무’를 긍정의 의미에서 빈번히 쓰는 현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음성 말뭉치 데이터 분석에 바탕하여, 첫째로 ‘너무’가 부정과 긍정의 맥락에서 쓰이는 빈도수를 조사하

였고 둘째로 ‘너무’의 연어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너무’가 상대적으로 빈번히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긍정의 맥락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만한 빈도로 쓰이고, 또한 주의 깊게 맥락을 살핀 후에도 부정이나 긍정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밝혔다. 또한 ‘너무’의 연어 관계를 분석하여 긍정의 의미보다는 부정의 의미를 지닌 단어들과 더 빈번히 사용됨을 밝혔다. 이에 바탕하여 본고는 ‘너무’ 자체가 부정의 의미를 지녔다기보다는 그 사용 맥락과 연어 관계에서 빈번히 부정의 의미를 지닌 단어들과 함께 쓰이다 보니 그 연관된 단어들의 부정적 의미가 ‘너무’의 의미에 전이되어 결국 규범문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현상이라고 제안한다. 즉 ‘너무’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함께 쓰이는 단어들로 인하여 부정적인 기운을 가지게 된 것으로 이것은 의미운율(semantic prosody)의 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너무’가 부정의 맥락 외에 긍정이나 중립의 맥락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너무’의 부정의 의미가 부정극어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어 화자의 마음 가운데에 문법화 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강범모. 2011. 형용사와 명사의 의미운율. *언어* 36.1, 1-23. 한국언어학회.
- 고혜원. 2011. 정도부사 너무의 어형성과 공기특성. *어문론집* 46, 121-139. 중앙어문학회.
- 김혜영·강범모. 2010. 구어 속 강조적 정도부사의 사용과 의미. *한국어학* 48, 101-129. 한국어학회.
- 박동근. 2007. 현대국어 강조부사 범주의 설정과 기능적 분석. *한글* 275, 129-163. 한글학회.
- 서정수. 1996. *수정증보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출판부.
- 안주호. 2003. 한국어 구어에서 정도부사 ‘되게’에 대하여. *언어과학연구* 24 149-166. 언어과학회.
- 이석규. 1988. *현대 국어 정도 어찌씨의 의미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규홍. 2002. 국어 정도부사 ‘너무’의 화용론적 의미. *배달말* 30, 1-22. 배달말 학회.
- 임규홍. 2004. 정도부사 ‘너무’의 어형성과 공기 특성. *우리말글* 32, 77-100. 우리말글 학회.
- 최현배. 1971.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 ALBIN, AARON. 2014. PraatR: An architecture for controlling the phonetics software "Praat" with the R programming languag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35.4, 2198.

- BOERSMA, PAUL and DAVID WEENINK. 2013. Praat: Doing phonetics by computer (Version 5.3.39) [Computer program].
- FIRTH, JOHN RUPERT. 1948. Sounds and prosodies. *Transactions of the Philological Society*, 47.1, 127-152.
- HUNSTON, SUSAN. 2002. *Corpora in Applied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NSTON, SUSAN and GILL, FRANCIS. 2000. *Pattern Grammar. A Corpus-driven Approach to the Lexical Grammar of English*.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KIM, HUEAN. 2008. Processes underlying the development of Korean intensifiers: The cases of "nemwu", "nemwunemwu" and "nem". *Linguistics* 16.3, 163-192.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 KO, EON-SUK, NA-RAE HAN, ALEXANDRA CARAVAN and GEORGE ZIPPERLEN. 2003. Korean Telephone Conversations Speech. Linguistic Data Consortium (LDC) catalog number LDC2003S03 and ISBN 1-58563-263-5.
- LANDIS, J. R. and KOCH, G. G. 1977.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33, 159-174.
- LEE, W. C., H. A. LEE and K. J. LEE. 2010. Summarization system of product reviews based on linguistic analysis of review texts.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17.B-1, 93-98.
- LOUW, WILLIAM EARNEST. 1993. Irony in the text or insincerity in the writer? In M. Baker et al. (eds.). *Text and Technology*, 240-251. Amsterdam: Benjamins.
- MYUNG, JAESEOK, DONGJU LEE and SANG-GU LEE. 2008. Korean product review analysis system by using a semi-automatically constructed semantic lexicon.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Software & Application* 35.6, 392-403.
- NAM, JISOON. 2014. A novel dichotomy of the Korean adverb nemwu in opinion classification. *Studies in Language* 38.1, 171-209.
- PARTINGTON, ALAN. 1998. *Patterns and Meanings*. Amsterdam and Philadelphia: Benjamins.
- \_\_\_\_\_. 2004. "Utterly content in each other's company": semantic prosody and semantic pref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9.1, 131-156.
- R CORE TEAM 2013.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Version 3.0*.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http://www.R-project.org>
- SINCLAIR, JOHN. 1987. Collocation: A progress report. In R. Steele and T. Threadgold (eds.). *Language Topics. Essays in Honour of Michael Halliday*, 319-332. Amsterdam, Philadelphia, Benjamins.

- \_\_\_\_\_. 1991. *Corpus, Concordance, Collo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4. *Trust the Text: Language, Corpus and Discourse*. London: Routledge.
- STUBBS, MICHAEL. 1995. Collocations and semantic profiles: On the cause of the trouble with quantitative studies. *Functions of Language* 2.1, 23-55.
- \_\_\_\_\_. 1996. *Text and Corpus Linguistics*. Oxford: Blackwell.
- \_\_\_\_\_. 2001. *Words and Phrases: Corpus Studies of Lexical Semantics*. New York: Blackwell.
- WHITSITT, SAM. 2005. A critique of the concept of semantic prosody.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10.3, 283-305.

Eon-Suk Ko  
Institute for Cognitive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Daehak-dong, Gwanak-gu, Seoul  
Korea 151-742  
e-mail: eonsukko@snu.ac.kr

received: August 6, 2015  
revised: August 17, 2015  
accepted: August 20, 2015